

## 전이성과 미완료 동사구문\*

허종희  
(상지대학교)

Huh, Jong-Hoi (2003). Transitivity and imperfective verb construc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Special Edition)*, 209-222.

Transitive relation and its directionality constitute the precondition for passivization, and the present study purports to unearth the true properties of transi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passive phenomena. The bottom line it drives at is this: transitivity is a notion that can be best explained in 'cognitive' terms. The original direction of transitivity that is predicated by a verb can be reversed depending on the speaker's intention or the discourse situation. In the imperfective verb constructions transitivity can not be derived from only the content of the sentence itself and the predicate objectionally. That depends on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speaker considering the cognitive prototype of human to the various complicated situations.

[transitivity/passivization/cognitive/imperfective,  
전이성/수동화/인지적/미완료]

### I. 서론

언어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언어는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언어능력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기본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서 이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간의 언어활동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발화된 내용이 어휘의 의미, 구와 절의 의미 외에도 발화자의 심리상태나 주변 상황

---

\* 본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평가대비)에 의한 것임.

동의 복잡한 언어의 적인(nonlinguistic) 요소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Chomsky가 말하는 문법적 언어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화용론적 언어능력(pragmatic competence)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복잡한 언어현상 속에서 기존의 언어이론의 틀이 변화를 거듭하고 수정보완되는 것은 언어이론이 그만큼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현상중 하나가 수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법적 해석에서부터 현대언어이론의 주류인 변형생성문법에서도 Chomsky의 표준이론, 확대 표준이론, move-a, 격이론 등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연구대상의 일부였다(더 나아가 생성의미론과 해석의미론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고, 어휘기능문법, 구 구조문법, 관계문법 등의 등장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수동화 현상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동화 현상을 동사의 타동성(transitivity)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여 왔다. 즉 수동화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변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수동화 가능성 여부도 주어진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즉 동사가 타동사인가의 여부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Moon(1988:19-92)에서도 지적하듯이 자동사가 수동화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구체적인 예는 2장에서 논의하겠다). 즉 수동화의 조건을 오로지 타동사의 속성에 연계시키는 종전의 이론이 타당하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타동성'과 '타동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타동성이란 목적어의 유무를 떠나서 정의되어야 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transitive'는 라틴어 trans('across')와 ire('go')로부터의 합성어로, 이는 특정의 행위(action)나 사건(event)이 하나의 개체에서 또 하나의 개체로 '전이(transition)'하면서 모종의 효력을 행사함을 이르는 말이다. 즉 A에 의해 유발된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대상 B가 영향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나 사건의 전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리로 보면 'transitivity'에 대한 '타동성'이라는 번역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sup>1)</sup>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위에서 사용된 '전이성'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더 잘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후부터 '타동성'이라는 용어 대신 '전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사실 transitive verb도 '전이동사'로 번역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부류의 동사야 말로 어휘적 속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서 전이성을 지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형적인 '전이적 구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타동사'라는 전통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만 생소한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야기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sup>2)</sup>

- 
- 1)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묘호하며 타동성이 마치 '타동사'만의 속성인 듯한 어감을 지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전이성이 타동사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자동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수동화 하여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그 표현의 '수동성' 바로 그것을 통해 주어가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전이성의 개념을 개관하고 그와 같은 틀 속에서 동사의 시상(aspect)에 따르는 수동화 가능성 여부를 미완료 동사 구문(imperfective verb construction)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동사의 완료형 내지 미완료형으로 표현되는 시상에는 전이성의 미세한 차별적 정도가 나타나며, 따라서 시상에 관한 논의는 수동표현의 인지론적 성격을 한층더 분명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전이성 이란?

이제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전이성'이라는 개념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타동사의 사용이 전이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수단일 뿐 그 유일한 수단은 아님에 대해서 언급했다. 즉 자연언어 가운데는 자동사가 수동화하는 현상도 얼마든지 있으며, 그러한 표현은 동사에 의해 서술되는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입는다는 뜻이다.

수동화 가능성 여부는 목적어의 유무, 즉 전통적 표현으로 동사의 전이성 여부에 귀착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Moon(1988:91-92)은 다음과 같이 자동사가 수동화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일본어의 예문을 보자.

- (1) a. musuko-ga sinda.  
'The son died.'
- b. kare-wa musuko-ni sinareta.  
'(Lit.) He was died by his son.'  
= 'His son died on him.'

사실상 (1)과 같은 상황은 수동구문에 대한 전통적 관념, 나아가 Chomsky식의 통사론적 형식화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위의(1)에서 수동화한 동사--sinu('죽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다음의 독일어의 예에서도 나타난다.

- (2) a. Es regnete stark.  
'it rained hard.'
- b. Wir wurden naß geregnet.  
'(Lit.) We were rained wet.'  
= 'We were drenched to the skin in the rain.'

---

전이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영어에서도 자동사의 수동화가 얼마든지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다음은 고대영어의 예이다.

- (3) a. *Da ymbhepon ðæs cyninges ðegnas mid wæpnum.*  
          'Then the king's retainers gathered with weapons.'
- b. *Ða wæs mid wæpnum ymbheped.*  
          '(Lit.) Then it was gathered with weapons.'  
          = 'Then there was a gathering with weapons.'

그렇다면 고대영어에서 허용되던 구문이 현대영어에서는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문제는 통시적인(diachronic)설명이 필요하다.<sup>3)</sup>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타동성'이라는 역어대신 '전이성'이라는 역어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전이성은 오로지 타동사만의 특성이 아니라 자동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수동화 하여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그 표현의 '수동성',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어가 '전이의 대상'으로 부각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 자동사는 그 자체로서는 전이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수동화하여 사용된 예문(b-예문)에서는 그 구문의 전체적 해석을 통해 전이적 의미가 '파생적으로 도출' 되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i) 타동사의 사용은 전이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수단일 뿐 그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 ii) 타동사이건 자동사이건 그것으로 전이적 의미가 구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한해, 수동표현이 가능하다;
- iii) 따라서 수동표현에 관한 한 전이성은 동사 자체의 타동성보다 우위의 개념이다(즉 전이성은 순수히 어휘론적으로만은 정의될 수 없다).

위의 (ii)와 (iii)이 함의하는 바는 각각 다음과 같다.

- iv) 타동사 구문이라고 하여 반드시 수동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v) 전이성은 동사만의 자질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자질이다.
- 위에서 (iv)에 대한 문제는 양화사(quantifier)나 조용어(anaphor)같은 요소의 개입

3) 그러나 현대영어도 '자동사의 수동화' 효과를 얻기 위한 독특한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언급해 둘 만하다. 전치사를 동반한 동사 구문은 이를테면 자동사를 '타동사회'하기 위한 통사적 조치인 샌이다. 즉 자동사의 수동화가 불가능한 현대영어는 전치사를 동사에 병합하는 '제분석'(reanalysis)을 통해 수동 구문을 실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치사동반동사구문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겠다.

없이 동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수동화가 배제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 a. Raskolinikov murdered the miser.
- b. The court punished the murderer.
- c. Teenagers love harlequin novels.
- d. Teenagers like harlequin novels.
- e. The thirsty caravan saw a mirage.
- f. The movie star has many cars.

(4)는 모두 ‘타동사 구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해당하는 수동표현은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정도가 같지 않다.

- (5) a. The miser was murdered by Raskolinikov.
- b. The murderer was punished by the court.
- c. Harlequin novels are loved by teenagers.
- d. ??Harlequin novels are liked by teenagers.
- e. ??A mirage was seen by the thirsty caravan.
- f. \*Many cars are had by the movie star.

위에서 우리는 ‘V-NP’를 수동화의 구조적 조건으로 보는 형식론적 접근 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4)의 예문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4a), (4b)에서는 해당동사가 ‘역동적(dynamic)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역동적 행위를 통해서 주어가 목적어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형적인(prototypical)’전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5a)와 (5b)에서도 수동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4c)의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역동적 행위’라기 보다는 ‘정태적(static) 심리작용’, 즉 감정(emotion)이다. 그러나 주어의 감정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심리작용에도 일종의 전이 과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5c)는 전혀 무리가 없는 표현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역동적 행위의 수동표현에 비해 정태적 심리작용에 대한 수동표현은 다소 ‘작위적’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라는 심리작용에 관한 한 (4d)도 (4c)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4d)의 수동표현인 (5d)는 매우 어색하다. 그 이유는 전이의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NP1-V-NP2’의 기본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전이의 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6) a.  $NP_1 \rightarrow NP_2$   
 b.  $NP_1 \leftarrow NP_2$

편의상 (6a)에서의  $NP_1$ 을 전이의 '시발자' 그리고  $NP_2$ 를 전이의 '표적'이라 한다면<sup>4)</sup>, (6b)에서는  $NP_1$ 이 전이의 표적이요,  $NP_2$ 가 전이의 시발자인 셈이다. 이제까지의 예에서 본 전이의 방향은 (6a)에 해당한다. 그러나 (4d)가 함축하는 전이의 방향은 (6b)와 같다. 즉 'A likes B'라는 표현의 본뜻은 'A가 B를 좋아한다'라기 보다는 'B가 A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며, 사실 고대영어에서는 A가 여격으로 그리고 B가 주격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5)</sup> 수동문의 근본 기능이 '전이의 표적'을 '주어'로 표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이의 시발자인 요소--여기서는 harlequin novels--를 주어로 표현한 (5d)가 어색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6)</sup> 이런 경우, 즉 전이의 시발자를 수동화한 경우, 우리는 전이적 관계에 '마찰'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4f)와 (5f)의 경우로 돌아가, 이런 경우의 동사 have가 수동화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전체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동사도 '타동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런 경우의 have는 '행위의 전이'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 관계' 내지는 '소속 관계'를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의 뜻은 (5f)를 다음과 같은 경우와 대조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 (7) a. No one can have this car unless its price is slashed to half.  
 b. ?This car cannot be had by anyone unless its price is slashed  
 to half.

(7b)와 같은 수동표현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것은, have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6a)에서와 같은 전이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즉 (정태적) 소

4) 여기서 '시발자' 및 '표적'은 '행위자' 및 '피동자'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예컨대 "I love her"에서 'her'를 '피동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love'라는 행위의 '표적'이라고는 할 수 있다.

5) 현대영어의 to like는 고대영어의 lician--혹은 gelicia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디 'to please'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Me (ge)liciað bec.  
 DAT please NOM  
 'To me are pleasing books' (= 'I like books.')

6) (5d)가 어색한 이유는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전이의 목표'이므로 결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teenager에 대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by를 붙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본문의 설명과 그 취지가 같다.

유의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 '취득'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sup>7)</sup> 하나의 동사에 전이성과 연관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have의 역동적 전이성이 상황에 의해 보강되는 다음과 같은 수동 표현은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진다.<sup>8)</sup>

- (8) a. Readers of my column sent me a flood of mail, asking whether the column could be *had* between covers or whether it was ultimately going to be put out in book form.
- b. Nicknames are . . . irritating, envenomed words of reproach [that] are the established signs by which the different compartments of society are . . . marked out for each other's hatred and contempt. They are to be *had*, read cut and dry, of all sorts and sizes . .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전이성이 수동화 조건의 대전제임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전이성의 일정한 '방향'이 추가 조건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6a)와 같이 주어가 전이의 '표적'이고 목적어가 전이의 '시발자'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 장의 맨앞에서 정리한 내용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즉 전이의 방향은 (6a)와 같아야 한다. (전이적 관계에 마찰이 생겨서는 안된다 ((5d,e)참조)). 한편 하나의 동사가 본래 함의하는 전이의 방향은 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역전 될 수 있다.<sup>9)</sup> 또한, 본래 전이성을 함의하지 않은 동사도 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전이성을 띠게 될 수 도 있다((7b),(8a,b)참조). 이와같이 전이성에 대한 좀더 상세한 개념은 인지적 개념에 의하지 않고는 정의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7) 이렇게 볼 때, (5f)와 같은 수동표현이 불가능한 이유를 어휘론적으로 설명하는 Wasow (1980)의 방법은 타당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have와 동의어라 할 수 있는 own이나 possess는 이른바 파생적 어형변화 (derivational morphology)를 일으킬 수 있으나 [예, owner, preown, possessor, re-possess, possession] \*haver, \*pre-have, \*re-have와 같은 어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have를 수동형으로 만드는 파생적 어형 변화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have와는 달리 own이나 possess는 수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The house is owned/possessed by Leslie"와 같은 표현에서 own이나 possess의 수동화가 자유로운 이유를 우리는 이 동사들은 '소유 관계'의 뜻과 더불어 '취득'의 뜻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 두 예는 문경환 교수가 필자에게 상기시켜 준 것으로, 각각 Theodore M. Bernstein의 *Dos, Don't's & Maybes* (Time Books, 1977)의 서론 부분과 William Hazlitt의 "On Nicknames"라는 글 시작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다.

9) 즉, 원래는 전이적 관계에 마찰을 일으키므로 수동화가 불가능한 동사라도 전이의 방향에 역전이 생김으로써 그러한 마찰을 피할수 있으며 따라서 수동화가 가능하다.

i) ? Such a proposal can't be liked by anyone.  
ii) He was seen to be slipping out of the back door.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전이성에 대하여 미완료 동사 구문을 통하여 논의하여 보겠다.

### III. 미완료 동사구문(Imperfective Verb Constructions)

위에서 논의된 전이성에 대해서 전형적인 전이적 사건은 보통 완료동사(perfective verbs)로 기술되며, 대조적으로 미완료 동사(imperfective verbs)는 전이적 사건의 불규칙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미완료란 행동의 주 참여자들 사이에 유지되는 변화이고, 혹은 완결된 관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을 통하여 불변성(constancy)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다.<sup>10)</sup>

- (9) a. John knows the couple nextdoor.  
b. John had two bicycles.
- (10) a.\* The couple nextdoor is known by John.  
b.\*\*Two bicycles were had by John.
- (11) a. The couple nextdoor was known only by John.  
b.? Those two red bicycles can be had by John (if he guesses their prices).

예문을 살펴보면 술어의 속성을 볼 때 동사의 시상(aspect)이라는 측면에서 (10a)와 (10b)는 동사가 '시점상의'(punctual) 혹은 '역동적인'(dynamic)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본원적인 미완료이다. 그런데 (11a)와 (11b)는 약간의 표현방식을 달리함으로써 (10)에서 보다 훨씬 잘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이성은 동사의 논항구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질의 기능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Hopper & Thompson(1980)에서도 절의 화용론적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Langacker(1987:254)는 완료동사를 변화하는 과정(changing process)으로 미완료동사를 변화하지 않는 과정(unchanging process)으로 구분하면서 완료적 과정은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고, 미완료적 과정은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지 않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12) a. John learned the combination to the lock.  
b. John knows the combination to the lock.
- (13) a. John is learning the combination to the lock.

10) Comrie(1976)는 완료와 미완료를 각각 사건(event)과 과정(process)으로 부르는데, 이는 사건의 과정에서 변화의 유·무로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 b. John finally knew the combination to the lock.

의미상으로 (12a)는 전형적인 완료적 과정을 (12b)는 미완료적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13a)에서 보면 원래 완료적 동사도 미완료적 과정에 대한 서술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면에 (13b)에서처럼 원래 미완료적인 동사도 다소 완료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완료 동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료동사와 같이 전이적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고찰은 많은 경우에 전이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미완료가 쓰인 문장의 수동화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완료는 일련의 유사한 상태를 그리는 반면 완료는 그렇지 않다.

- (14) a. ?John kicks his father.
- b. John resembles his father.
- (15) a. John is kicking his father.
- b. \*John is resembling his father.

위의 예문(14),(15)에서 미완료는 완료와는 다르게 특별한 해석이나 상황이 없이도 단수 현재시제로 쓰인다. 즉 (14a)는 습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어떤 무대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의 아버지를 차고 있다”거나,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또한 (15)에서 보면 완료는 미완료가 되면서 진행형을 취할 수 있으나 (15b)에서처럼 미완료는 그렇지 못하다.

- (16) a. Bill ignores his mother-in-law's insults.
- b. John avoids crowds.

미완료는 어떤 행동의 반복되는 예를 보여주는 'ignore'나 'avoid'같은 원래 습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동사와 시상(aspect)적으로 유사하다. (16a)와 (16b)에서 문제의 행동은 모든 가능한 기회마다 스스로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완료(imperfectives)가 습관적인 것으로 더 많이 이해될 때 전이성의 지표가 올라간다. 결국 Rice(1987)는 자료분석을 통하여 Hopper & Thompson(1980)의 화용론적 모형의 모순을 지적하고 저 전이성(low transitivity)과 상관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미완료(imperfectives)의 수동화 가능성을 높여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완료들이 수동형을 가지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Hopper & Thompson(1980)은 그의 논문에서 열 개의 전이성 구성요소 특질(transitivity component features)<sup>11)</sup>을 설정하고 이 매개변항들이 문장에서 고 전이성에 속하느냐, 저 전이성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의 전이성을 측정하였다.

Rice(1987)는 인지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전이성이라는 것이 어휘적 혹은 통사적 정의의 차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Hopper & Thompson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Rice는 타동절이 절의 형태론적 속성에 고유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속성으로부터 파생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전이성과 관련있는 변형들은 문장 그 자체의 내용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17) a. The yard contains the swimming pool.  
b. The swimming pool occupies the yard.
- (18) a. \*The swimming pool is contained by the yard.  
b. ?The yard is occupied by the swimming pool.

위의 예문에서 Hopper & Thompson(1980)의 매개변항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한 전이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 전이성	저 전이성
2 participants	non-action
affirmative	non-punctual
realis	non-volition
O highly individuated	Agency low in potency
	O not affected

다시 말해서, 각각 고 전이성과 저 전이성에 동일한 매개변항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문 (17)과 (18)에서 전이성은 분명히 그들이 설정한 매개변항들의 전이성 여부에 의한 총합 그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17)과 (18)에서 똑같이 정태를 나타내는 수용의 상황(stative containment situation)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다르게 된다. 실제로 위 예문에서 'occupy'는 'container' (=yard)가 경계선까지 꽉 차 있음을 의미하며, 반면에 'contain'은 꽉 차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contain'은 완결이나 경계의 의미보다는 순수하게 형상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선택제한의 측면에서 보면 능동문의 주어로서 'container'는 수동문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면에 능동문으로서의

11) 그들이 논의한 구성요소들은 participants, kinesis, aspect, punctuality, volitionality, affirmation, mode, agent, affectedness of O, individuation of O 등이다.

'containee'는 수동문을 허용한다. 따라서 Hopper & Thompson(1980)의 화용론적 분석은 한계성을 갖는다.

다시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 (19) a. \* The couple nextdoor is known by John.
- b. ? Reagan is believed by Ortega.
- c. ? The rumors are doubted by Sue.
- d. \* New delays are minded by John.

예문 (19)에서 미완료 동사들이 쓰인 문장들은 거의가 수동형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그런데 (19)는 부정문이 되면 문장으로서의 수용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즉 부정이 수동문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된다.

- (20) a. ?The couple nextdoor is not known by John.
- b. Reagan is not believed by Ortega.
- c. The rumors are not doubted by Sue.
- d. ?New delays are not minded by John.

한편 완결성(completedness)의 상호작용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부정과 다음 예문 (21)에서 볼 수 있는 완결성은 수동문 가능성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 (21) a. The couple nextdoor is no longer known by John.
- b. Reagan is no longer believed by Ortega.
- c. The rumors are no longer doubted by Sue.
- d. New delays are no longer minded by John.

이와 더불어 완결성은 완료를 나타내는 특성이니까 고 전이성을 떤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서법조동사(modals)는 비현실(non-real) 혹은 불확실의 세계(contingent world)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22)에서 보듯이 (19)의 문장들의 수동화 가능성을 서법조동사가 옮겨주고 있다. 또한 (23)에서는 부정과 과거시제가 수동화 가능성을 (22)보다도 훨씬 더 옮겨주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이원적 상관분석(binary correlational analysis)은 예문들에서 보여준 수동화 가능성에 의해 입증된 명백한 전이성을 설명할 수 없다. 즉 Hopper & Thompson의 매개변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결성을 제외하고는 부정과 비현실, 과거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저 전

이성 요소들 임에도 불구하고 전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동문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 (22) a. The couple nextdoor should be known by John (since he married their daughter).
- b. Reagan would be believed by Ortega (if it weren't for the Contras).
- c. ?The rumors should be doubted by Sue.
- d. ?New delays should be minded by John.
- (23) a. The rumors shouln't have been doubted by Sue (for now she is the last to know the truth).
- b. New delays shouldn't have been minded by John (Since he wasn't ready to preceed anyway).

따라서 전이성은 문체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Hopper & Thompson의 전이성과 관련된 변형들은 문장 그 자체의 내용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가지 매개변항은 대체적으로 언어학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타동적 사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형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곁으로 드리난 절의 형태에서, 타동적 특성에서, 정관사 등에서 전이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이 통합되어 있는 전이성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이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동형을 갖는 많은 절들이 저 전이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 전이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 절들도 전이성에 대해서 불완전 할 수 있고 해당되는 수동형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 전이성과 그의 수동화 가능성은 단순한 부가적 기능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수동화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이성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많은 미묘한 개념적 요인들이 전이성의 평가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전이성이 낮은 미완료동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쓰인 문장에서의 전이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전이성은 문장 그 자체의 내용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며 화자에 의한 주관적 해석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Hopper & Thompson의 화용론적 분석에 대한 검증에서 수동문의 수용성 여부는 그들이 제시한 매개변항에서의 고 전이성에 속하는 요인들과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언어외적 요인 즉 인간의 다양한 인지체계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전이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늘 절의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화자에게 개념상으로 사건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방식과 관계될 수 있다.

## N. 결 론

한 문장의 전이성은 행위자에서 피동자로 사건이 옮겨지는 어떤 행위로써 물리적 윤유를 인용하여 정의된다. 그런데 물리적이든 언어학적이든 매개자와 수신자를 필요로 하고 순수한 이동은 수신자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전이성은 한 문장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전이적 관계에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그 방향은 일방향적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향은 담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 본래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이에 따라 수동화의 가, 불가가 결정되기도 한다.

미완료 동사구문에서도 전이성은 문장 그 자체의 내용이나 술어에서 객관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원형에 입각하여 화자의 주관적 해석에 달려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개변항을 이용한 전국면적 분석방법에서는 원형적 전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일된 의미적 설명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이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항상 절의 액면 그대로의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화자와 청자에게 문제의 사건이 어떻게 보여지는나 하는 인지적 해석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_\_\_\_\_.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 Press.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The Univ. of Chicago Press.
- Hoekstra, T. (1984). *Transitivity: Grammatical Relations in Government -Binding Theory*. Dordrecht: Foris.
- Hopper, P. J. and Thompson, S.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51-299.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Vol.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 Vol.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n, K. H. (1988). Syntactic Valence Reduction and Passivization. *Linguistic Analysis*. Vol. 18. Elsevier North Holland, pp. 81-120.
- Postal, P. M. (1986). *Studies of Passive Clauses*. Albany: SUNY Press.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e, S. A. (1987). *Toward a Cognitive Model of Transitivit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 Wasow, T. (1981). Major and Minor Rules in Lexical Grammar. In *Lexical Grammar*, Hoekstra, T., van der Hulst, H. and Moortgat, M., eds. Dordrecht : Foris, pp. 285-31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Japanese, Deutsc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Huh, Jong-Hoi

상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20-70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E-mail: jhhuh@mail.sangji.ac.kr

Received in Sept., 2003

Reviewed in Oct.,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 2003